

“폭도 왜곡·가족 해체 속 5·18 고통 재생산”

금전적 보상도 망가진 삶 회복에 기여 못해...편견적 시선도 여전히 5·18진상조사위, 집단 트라우마 연구 용역...치료 전문센터 시급

5·18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한 것과 별개로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집단트라우마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는 최근 경성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등의 집단트라우마에 대한 심리·사회적 표본조사' 연구 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용역은 5·18민주화운동을 비롯, 국가폭력 및 사회적 참사로 인한 집단트라우마 연구 방법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5·18피해자들이 겪는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팀은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

까지 기존 피해자들의 구술증언집을 분석하는 한편, 50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를 진행했다.

표본조사는 ▲직접피해자 ▲유가족(1세대 및 2세대) ▲의료인·수습대원·자원봉사자·기자 등 대응인 ▲목격자 ▲사후노출피해자 등으로 나눠 각각의 그룹을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피해양상을 연구했다.

연구팀 조사결과, 직접 피해자들의 경우 금전적 보상금을 받은 것과 상관없이 트라우마가 지속적으로 재생산·강화되는 경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18 당시 경험한 처참하고 야만적인 국가 폭력, 과거청산 과정에서 겪은 인권 훼손 등이 맞물

리면서 생긴 은둔·비판·저항·갈등·좌절 등의 트라우마에 다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군인·경찰을 보면 피한다”,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숨죽이며 살고 있다”, “폭도·빨갱이·간첩·전과 자라는 오명과 낙인이 짙혀 사회적으로 고립됐다”, “5·18 경험으로 가족이 해체됐다” 등의 트라우마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금전적 보상도 이미 망가진 삶을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했고 명예 회복을 위한 과거 청산 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트라우마를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연구팀 분석이다.

유가족들도 가족상상의 아픔을 경험한 데 이어 '가장·돌봄의 부재로 어린 나이에 가장 역할'을 하는 현실적 어려움 뿐 아니라 '빨갱이·폭도의 가족'이라는 왜곡·비하로 인한 심리적 고통, '5·18 희생자 가족'이라는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점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18 참상을 지켜본 목격자들도 신군부로부터 생명·안전·건강권 등을 위협받고 침해당했던 경험

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피해자와 비슷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5·18이후 그날의 진실과 대면한 사람들인 사후노출피해자들의 경우 5·18 당시 사진·영상물 등을 보고 관련 이야기를 접한 뒤 충격과 공포를 경험하고 죄책감, 분노 등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각 그룹들에게서 나타난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전문적 센터 조성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공동연구를 맡은 김중곤 건국대 연구교수는 “5·18 당시 현장을 직접 경험한 자들과 유가족만을 피해자만으로 보는 것 전통적인 피해자 정의로는 일반대응인·사후노출피해자·광주전남일대의 지역민들의 트라우마는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5·18 이후 재생산되는 집단적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청년 4명 중 1명 코로나 여파 실적 경험

코로나19 여파로 광주 청년 4명 중 1명꼴로 실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 2명 중 1명은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는 25일 시의회에서 '코로나19 시대 청년의 삶 실태 진단 및 대책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오인장 광주시 청년정책팀장이 발제자로 나서 '코로나19 시대의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실적 경험이 있는 청년은 24.4%로 조사됐다. 실적 이유는 권고사직·해고가 37.9%로 가장 많았고, 계약 기간 만료 18.7%, 자발적 퇴사 17.9% 순이었다.

소득 변화도 36.5%가 '줄었다'고 답했으며, '늘었다'는 10.3%에 불과했다. 수입 감소에 대응 방안은 자발적인 소비 축소가 44.8%, 부모님·지인 의존 27.5%, 대출·금융자산 활용 11.8% 등이었다. 29.9%가 부채가 늘었고 대출 경험은 11.6%가 있었다고 답했다. 대출을 받은 청년 중 37.9%가 생활비, 34.0%가 주거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적인 어려움도 커 40%가 고독감을, 50%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으며 13%는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고 답했다.

최영환 의원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대의 피해 및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경제 활동 위축과 소득 감소까지 겹쳐 생활이 위협받고 불평등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의회 청년특위는 이번 조사를 코리아정보 리서치에 의뢰, 광주 지역 만 19~3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삶의 변화 실태를 조사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종교적 이유 2019년 아프간 탈출 광주에서 난민 신청...결과 주목

탈레반의 보복 위험에 처한 아프가니스탄인 300여명이 26일 한국으로 입국하는 가운데 이미 종교적 이유로 아프간을 탈출한 외국인이 광주에서 난민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아프간 국적 A씨는 지난 2019년 무슬림 대신 기독교를 선택해 박해를 받을 우려 등을 들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 한국으로 입국,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난민 인정 신청을 내고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A씨는 당시 신청서를 낸 뒤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자칫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을 염려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A씨가 최근 변호인을 통해 도움을 받을 방안을 다시 문의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아프간 재건사업에 협력했던 아프간인과 그 가족 등 총 391명(76가구)가 26일 한국에 입국하고 법무부가 “국내에서 체류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해 특별체류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점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1년 미국의 아프간 침공을 지원하고자 비전투부대를 파병했고, 2007년 12월 군부대 철수 이후에도 지방재건팀(PRT)을 운영하며 국제사회의 재건 노력에 동참했다.

당시 한국이 운영한 병원과 직업훈련원 등에서 일했던 아프간인들은 탈레반의 정권 장악이 임박하자 생명을 위협을 느껴 정부에 한국행 지원을 요청했다.

A씨도 이같은 분위기 속에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난민 신청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지 등 한국에 머무르는 데 효과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치매환자에게 전달할 생필품 25일 광주시 북구 동림동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원들이 관내 치매환자에게 전달할 기저귀와 미끄럼방지양말 등의 돌봄에 필요한 생필품을 정리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거푸집 해체공사 맡겼다면 법원 “등록 필요한 건설업 해당 안돼” 무죄

건설업자들이 오피스텔 신축공사 등을 때때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거푸집 해체공사를 맡겼다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할까.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건설사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등록 건설업자 A(5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에게 공사를 맡긴 업체 대표 B씨 등 2명과 B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사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오피스텔 등을 신축공사 과정에서 두 차례 거푸집 '해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은 A씨에게 거푸집 '해체' 공사를 맡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맡은 거푸집 해체공사의 경우 등록을 필요로 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건설사업기본법(9조)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골조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정의하면

서 '거푸집 공사'를 예로 들고 등록이 필요한 전문공사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에는 '축조'만 포함된 점 등을 들어 거푸집 '해체'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거푸집 해체작업이 단순 노무공급업무 수준이라면 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토부 답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등록을 필요로 하는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특별한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아 일반 인부들을 투입해 작업했고 업체와도 인력 공급 약정을 체결했다는 A씨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거푸집 해체공사는 등록이 필요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학동 참사’ 27일 현장 검증 다음달 8일 첫 공판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된다.

1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창기 기사(불법 재하도급 업체 대표) A(47)씨, 일반 건축물 철거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B(28)씨의 첫 공판을 앞두고 27일 현장 검증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형사 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현장 검증은 검찰의 기일 전 증거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이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전 11시 10분 광주지법 102호 법정에서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들은 다단계 하도급,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법규를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행하다가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지상 5층·지하 1층) 붕괴 사고를 유발, 사상자 17명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붕괴 참사와 관련된 경찰의 조사 대상은 45명으로, 현재까지 6명이 구속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행복이벤트

응모기간 2021년 3월 8일 ~ 12월 31일 **추첨** 2022년 정기총회(22년 1월 예정) **행사대상** 신규 및 기존 거래자
응모방법 유니온 정기적금개설, 체크카드20만원 이상 이용, 출자금자동이체, 신허 공제가입, 공과금자동이체 및 계좌이체, 신허 제휴카드발급, 사업자 결제계좌, 연금자동이체, 사회적 예탁금 등
 ※ 중복응모가능, 동일 항목당 최대 2매까지 (응모방식은 창구방문)

파워정기예탁금 I형, II형

12개월 연 1.7% 세전 / 만기해지

18개월 연 1.77% 세전 / 만기해지

2020년도 출자금 배당률

2.97%

출자금은 예금보호대상성이 아니고 조합 경영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출자금 배당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2) 이 금융상품을 계약 하시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예탁금 및 저축은 신허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4)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자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합니다.
- 5)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 6) 금융상품 관련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협 영업점 및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등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1명	2등 LG퓨리케어 공기청정기 2명	3등 제주도 2박3일 숙박이용권 5명	4등 키친아트 에어프라이어 15명
5등 테팔 세프드프랑스 프라이팬 100명			

※ 제세공과금(22%)은 당 신허이 부담하며, 경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협영업점 및 홈페이지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본점 266-4150 (광주 북구 문흥로 38)	양산지점 573-4150 (북구 양산로 59)	운암지점 528-4150 (북구 북문대로 89)	동림지점 513-4150 (북구 동문대로 238)
매곡지점 572-4150 (북구 설죽로 315번길)	침단지점 576-4150 (북구 침단신로 91번길2-2)	동광주지점 264-4150 (북구 동문대로 187)	각화지점 263-4150 (북구 동문대로 283, 285)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신협중앙회 심의필 제2021-6호(2021.05.28), 유효기간 2021.12.31까지